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일순*, 윤혜정**
경동대학교 치위생학과,*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Influential Factors for the Oral Health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Il-Soon Park*, Hye-Jeong Youn**

Dept. of Dental Hygiene, Kyoung Dong University*

Dep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 대학생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구강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인력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연구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대학생들이 인지, 자각하고 있는 구강건강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p<0.001$), 구강건강의 중요도($p<0.01$), 현재 학생들이 지각하는 구강건강 상태($p<0.01$) 등의 모든 요인에서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 학생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구강보건인식 수준은 치위생과 학생이 4.41 ± 0.62 점으로 일반 학생 3.81 ± 0.70 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1$), 구강보건실천 수준 역시 치위생과 학생이 3.80 ± 0.61 점으로 일반 학생 3.33 ± 0.57 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이상의 결과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보건인식과 실천 수준이 높고, 구강보건인식 수준이 증가할수록 구강보건실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시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구강보건실천, 치위생과 학생, 일반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ral health practice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in an effort to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personnels responsible for oral health practice. Their oral health awareness was investigated, and what factors might affect their actual oral health practice was observed. An then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Followings a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First, wh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lf-rated oral health of the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the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ahead of the other students who didn't major in dental hygiene in every factor including oral health concern($p<0.001$), awareness of oral health importance($p<0.01$) and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p<0.01$). Second, the dental hygiene students significantly excelled the other students in both the level of oral health awareness($p<0.001$) and the level of oral health practice($p<0.001$).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at mor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s led to better oral health awareness and better oral health practice, and that better oral health awareness led to better oral health practice.

Key Words : Dental hygiene students, Non-dental hygiene students, Oral health practice

Received 7 May 2013, Revised 17 June 2013

Accepted 20 July 2013

Corresponding Author: Hye-Jeong Youn(Suwon women's College)

E-mail: nara78@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자신의 건강을 방어할 수 있는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많은 보건교육 프로그램들은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보건정보 자체의 제공에만 주력하여 '건강행동의 변화'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1]. 따라서 최근에는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단순한 인식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건강습관을 전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2].

건강습관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한번 형성된 건강습관은 쉽게 고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3]. 따라서 성인이기 되어 습관이 고착되기 전에 올바른 건강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의 건강관리 습관은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측인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습득과 활용은 건강한 성인기를 보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4].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증가된 자유 시간, 아르바이트, 식사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 잦은 결석과 야식, 음주 및 흡연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5]. 따라서 이들 시기에 좋은 건강관리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구강건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건강상태와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 시 되어야 한다. 구강건강 역시 무엇보다 올바른 구강보건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천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9]. 김[9]은 구강보건실천의 수준이 낮은 이유를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의 치아 상태에 관심이 있어도 예방행위에 소홀한 것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치과치료가 치료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여 예방적 행위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과 문[10]은 꾸준한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 수준과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관찰하고 측정함으로써 그들의 특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이 시기에 적합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개발의 기초를 부여한다. 또한 일반대학생에 비하여 구강보건지식이 비교적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 대학생과의 비교분석으로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구강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인력들에게 구강보건교육 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시행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의 2개 대학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연구자료의 수집은 조사의 취지와 작성법을 설명하고 이에 응한 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나누어준 다음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자료수집에 총 350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이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29부를 제외한 321(91.71%)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신뢰도

치위생과와 일반 학생들의 구강보건실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4문항, 구강건강 특성 3문항, 구강보건 교육관련 3문항, 구강보건인식 13문항, 구강보건관리실천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별, 학년, 거주지, 부모님의 월 평균소득 등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구강건강 특성에 관한 문항은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구강건강의 중요도, 현재의 구강건강 상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 구강보건교육 관련 문항은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유무, 칫솔 외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한 경험 유무, 치과 전문가로부터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등이 포함되었으며,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실천 수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이[11]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Likert 방식에 의한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

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 인식이나 실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실천 각각 Cronbach's alpha 0.949, 0.87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치위생과와 일반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구강건강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 관련 요인은 치위생과와 일반 학생들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실천 수준은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구강건강 특성과 구강보건인식 및 실천 수준은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 학생을 구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교육 관련 요인에 따른 구강보건인식과 실천 수준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 학생에 대한 구강보건실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 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치위생과 학생의 성별 분포는 전체 145명에서 남자 0.7%, 여자 99.3%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3학년 38.6%, 2학년 35.2% 순이었고, 거주지는 수도권 64.8%, 지방 35.2%, 부모님의 월 평균소득은 200-300만원이 39.3%로 가장 많았다.

일반 학생의 성별 분포는 전체 176명에서 남자 51.1%, 여자 48.9%였으며, 학년은 1학년 44.3%, 2학년 38.1%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지는 수도권 64.2%, 지방 35.8%,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은 200-300만원이 30.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Unit :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Gender	Man	1(0.7)	90(51.1)
	Woman	144(99.3)	86(48.9)
Academic year	1 grade	38(26.2)	78(44.3)
	2 grade	51(35.2)	67(38.1)
	3 grade	56(38.6)	31(17.6)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area	94(64.8)	113(64.2)
	Locality	51(35.2)	63(35.8)
Monthly income of parents (Unit : 1,000won)	Less than 1,000	10(6.9)	19(10.8)
	1,000-2,000	28(19.3)	44(25.0)
	2,000-3,000	57(39.3)	54(30.7)
	3,000-5,000	38(26.2)	35(19.9)
	At least 5,000	12(8.3)	24(13.6)
Total		145(100.0)	176(100.0)

3.2 구강건강 특성

치위생과와 일반 학생들이 인지, 자각하고 있는 구강건강 특성은 구강건강 관심도, 구강건강 중요도, 현재 구강건강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elf-rated oral health

variables	dental hygiene (N=145)	non-dental hygiene (N=176)	t	p
	Mean±SD	Mean±SD		
oral health concern	3.88±0.72	3.11±1.00	8.004	0.000***
awareness of oral health importance	4.43±0.98	4.06±0.99	3.293	0.001**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3.28±0.81	3.01±0.90	2.882	0.004**

** : p<0.01, *** : p<0.001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은 치위생과 학생 3.88±0.72점, 일반 학생 3.11±1.00점으로 나타나 치위생과 학생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p<0.001), 구강건강의 중요도에서도 치위생과 학생이 4.43±0.98점으로 일반 학생의 4.06±0.99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또한 현재 학생들이

자각하고 있는 구강건강 상태 역시 치위생과 학생 3.28±0.81점으로 일반학생 3.01±0.90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3.3 구강보건교육 관련 요인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 관련 요인은 <Table 3>와 같다.

<Table 3> The Factors Related to Oral health education

(Unit :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χ^2	p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113 (55.9)	89 (44.1)	202 (62.9)	25.516	0.000***
	No	32 (26.9)	87 (73.1)	119 (37.1)		
Experience of oral hygiene devices use	Yes	130 (62.5)	78 (37.5)	208 (64.8)	71.639	0.000***
	No	15 (13.3)	98 (86.7)	113 (35.2)		
Education experience of oral hygiene devices use	Yes	98 (65.3)	52 (34.7)	150 (46.7)	46.216	0.000***
	No	47 (27.5)	124 (72.5)	171 (53.3)		

***: p<0.001

구강보건교육은 치위생과 학생 55.9%, 일반 학생 44.1%에서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구강위생보조용품은 치위생과 학생 62.5%, 일반 학생 37.5%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치과 전문가로부터의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법에 관한 교육의 경험은 치위생과 학생 65.3%, 일반 학생 34.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3.4 구강보건인식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 수준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Oral health recognition

Quest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A right toothbrushing method	4.50±0.75	4.11±0.86
A right toothbrushing time	4.25±0.85	3.77±0.98
Toothbrushing before going to bed.	4.41±0.89	3.93±0.94
Important of toothbrushing method	4.39±0.81	3.87±0.93
Need of oral hygiene devices	4.26±0.75	3.48±0.93
Important of appropriate toothbrush choice	4.40±0.75	3.83±0.95
Period of toothbrush exchange	4.26±0.86	3.83±0.94
Necessity of regularly scaling	4.46±0.75	3.68±0.99
Cause of gum disease	4.37±0.76	3.64±0.92
Scaling for preventing gum disease.	4.43±0.73	3.62±1.00
Prevention of decayed tooth and gum disease	4.61±0.77	3.99±0.92
Oral health education	4.46±0.77	3.85±0.94
Regular oral check-up	4.52±0.70	3.90±0.95
Average	4.41±0.62	3.81±0.70
	t(p): 8.141(0.000***)	

***: p<0.001

구강보건인식 수준은 치위생과 학생이 4.41±0.62점으로 일반 학생 3.81±0.70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p<0.001), 치위생과 학생이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인식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치위생과 학생은 ‘충치와 잇몸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4.61±0.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강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 4.52±0.70점,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잇몸병을 예방 할 수 있다’ 4.50±0.7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잇몸병을 예방 할 수 있다’ 4.11±0.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치와 잇몸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3.99±0.92점, ‘칫솔질은 취침 전에 해야 한다’ 3.93±0.94점 순으로 나타났다.

3.5 구강보건실천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구강보건실천 수준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Oral health practice

Quest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othbrushing after having a meal.	4.05±0.86	3.68±0.97
Toothbrushing before going to bed.	4.43±0.81	3.91±0.91
Toothbrushing for more than 3 months.	4.03±0.93	3.70±0.90
Being brushed with rotating.	4.27±0.84	3.79±0.91
Tongue is being brushed	4.54±0.75	4.14±0.93
Oral hygiene device is being used.	3.76±1.16	2.94±1.18
Toothbrush is being chosen to be used.	3.91±0.96	3.39±0.99
Toothbrush is being exchanged	3.87±1.00	3.45±0.94
Use of contained fluorine toothpaste	3.81±1.06	3.30±0.92
Toothbrushing when the gum is swollen and bleeds.	3.70±1.04	3.25±1.06
Scaling is being taken regularly.	3.23±1.25	2.60±1.14
Food harmful to teeth is being avoided.	2.65±1.13	2.51±0.96
Opportunity of receiving oral health education.	3.56±1.06	3.06±0.92
Regular oral check-up is being taken.	3.22±1.22	2.73±1.12
Treatment is taken given requiring dental care.	4.00±1.06	3.59±1.02
Average	3.80±0.61	3.33±0.57
	t(p): 7.126(0.000 ^{***})	

***: p<0.001

구강보건실천 수준은 치위생과 학생이 3.80±0.61점으로 일반 학생 3.33±0.57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p<0.001), 치위생과 학생이 구강보건 실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s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oral health recognition and oral health practice

Division	Oral health concern	Awareness of oral health importanc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recognition	Oral health practice
Oral health concern	1				
Awareness of oral health importance	0.169(0.042 [*])	1			
Oral health status	0.165(0.047 [*])	-0.092(0.270)	1		
Oral health recognition	0.155(0.063)	0.179(0.031 [*])	0.119(0.153)	1	
Oral health practice	0.242(0.003 ^{***})	0.256(0.002 ^{**})	0.130(0.120)	0.538(0.000 ^{***})	1

*: p<0.05, **: p<0.01, ***: p<0.001

구강보건실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치위생과와 일반 학생 모두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닦고 있다’(각각 4.54±0.75점, 4.14±0.93점)가 실천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침 전에 칫솔질을 하고 있다’ (각각 4.43±0.81점, 3.91±0.91점), ‘칫솔질 할 때 회전하면서 치아와 잇몸을 닦고 있다’ (4.27±0.84점, 3.79±0.91점) 순으로 나타났다.

3.6 구강건강 특성과 구강보건인식 및 실천의 상관관계

치위생과와 일반 학생들의 구강건강 특성과 구강보건인식 및 실천의 상관관계는 <Table 6, 7>과 같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구강건강 중요도(p<0.05), 현재의 구강건강 상태(p<0.05), 구강보건실천(p<0.01)과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구강건강 중요도는 구강보건인식(p<0.05)과 구강보건실천(p<0.01)과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구강보건인식은 구강보건실천(p<0.001)과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6>.

일반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구강건강 중요도(p<0.001), 현재의 구강건강 상태(p<0.05), 구강보건인식(p<0.001), 구강보건실천(p<0.001)과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구강건강 중요도는 구강보건인식(p<0.001)과 구강보건실천(p<0.001)과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구강보건인식은 구강보건실천(p<0.001)과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7>.

〈Table 7〉 Correlations among non-dental hygiene students's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oral health recognition and oral health practice

Division	Oral health concern	Awareness of oral health importanc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recognition	Oral health practice
Oral health concern	1				
Awareness of oral health importance	0.484(0.000 ^{***})	1			
Oral health status	0.153(0.043 [*])	0.057(0.450)	1		
Oral health recognition	0.455(0.000 ^{***})	0.480(0.000 ^{***})	0.114(0.132)	1	
Oral health practice	0.321(0.000 ^{***})	0.275(0.000 ^{***})	0.130(0.086)	0.558(0.000 ^{***})	1

*: p<0.05, **: p<0.01, ***: p<0.001

3.7 구강보건교육 관련요인에 따른 구강보건 인식 및 실천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 관련요인에 따른 구강보건인식 및 실천 수준은 <Table 8>과 같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실천 수준은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86±0.59점으로 없는 경우 3.34±0.62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그 외에 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와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법 교육 경험 유무에서는 구강보건인식과 실천 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학생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구강보건인식(p<0.01)과 실천(p<0.05)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보건인식은 3.95±0.72점, 구강보건실천은 3.43±0.61점으로 없는 경우의 3.66±0.65점, 3.24±0.51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인식(p<0.001)과 실천(p<0.001)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보건인식 4.03±0.62점, 구강보건실천 3.52±0.54점으로 없는 경우의 3.63±0.70점, 3.19±0.54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법 교육 경험유무에 따

〈Table 8〉 Oral health recognition and oral health practice according to factors related to oral health education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N	Oral health recognition	Oral health practice	N	Oral health recognition	Oral health practice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113	4.43±0.55	3.84±0.60	89	3.95±0.72	3.43±0.61
	No	32	4.32±0.84	3.67±0.64	87	3.66±0.65	3.24±0.51
	t(p)		0.706(0.485)	1.394(0.166)		2.770(0.006 ^{**})	2.209(0.028 [*])
Experience of oral hygiene devices use	Yes	130	4.42±0.64	3.86±0.59	78	4.03±0.62	3.52±0.54
	No	15	4.35±0.51	3.34±0.62	98	3.63±0.70	3.19±0.54
	t(p)		0.391(0.697)	3.225(0.002 ^{**})		3.993(0.000 ^{***})	3.991(0.000 ^{***})
Education experience of oral hygiene devices use	Yes	98	4.43±0.63	3.86±0.63	52	4.01±0.66	3.61±0.57
	No	47	4.35±0.61	3.67±0.55	124	3.72±0.70	3.22±0.52
	t(p)		0.734(0.464)	1.781(0.077)		2.516(0.013 [*])	4.374(0.000 ^{***})

*: p<0.05, **: p<0.01, ***: p<0.001

른 구강보건인식(p<0.05)과 실천(p<0.001) 수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보건인식 4.01±0.66점, 구강보건실천 3.61±0.57점으로 없는 경우의 3.72±0.70점, 3.22±0.52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8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위생과와 일반 학생들의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구강보건실천을 종속변수로 전체 구강보건인식, 구강건강 특성과 구강보건교육 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치위생과 학생에서 구강보건실천 수준은 구강보건인식, 구강건강 특성과 구강보건교육 관련 요인들에 의해

39.2%로 설명되었으며, 구강보건인식(β=0.484, p<0.001) 수준과 구강건강 중요도(β=0.142, p<0.05)가 높을수록,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경험이 있을수록(β=0.227, p<0.01) 전체 구강보건실천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구강보건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일반 학생에서 구강보건실천 수준은 구강보건인식, 구강건강 특성과 구강보건교육 관련 요인들에 의해 36.5%로 설명되었으며, 구강보건인식(β=0.511, p<0.001)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법의 교육 경험이 있을수록(β=0.204, p<0.01) 구강보건실천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구강보건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Table 9> Factors influencing dental hygiene students's oral health practice

Division	B	SE B	β	T	p
(Constant)	0.518	0.386		1.341	0.182
Oral health recognition	0.473	0.067	0.484	7.031	0.000***
Oral health concern	0.079	0.060	0.094	1.320	0.189
Awareness of oral health importance	0.088	0.043	0.142	2.046	0.043*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0.009	0.053	0.012	0.169	0.866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	0.008	0.116	0.005	0.069	0.945
Experience of oral hygiene devices use (○)	0.453	0.137	0.227	3.293	0.001**
Education experience of oral hygiene devices use (○)	0.090	0.106	0.070	0.856	0.394

*: p<0.05, **: p<0.01, ***: p<0.001

R²=0.392
adj.
R²=0.360
F=12.596
p=0.000***

<Table 10> Factors influencing non-dental hygiene students's oral health practice

Division	B	SE B	β	T	p
(Constant)	1.632	0.230		7.101	0.000***
Oral health recognition	0.415	0.060	0.511	6.944	0.000***
Oral health concern	0.026	0.043	0.046	0.604	0.547
Awareness of oral health importance	-0.032	0.044	-0.055	-0.718	0.474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0.029	0.040	0.046	0.733	0.464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	-0.033	0.078	-0.029	-0.420	0.675
Experience of oral hygiene devices use (○)	0.058	0.085	0.051	0.678	0.499
Education experience of oral hygiene devices use (○)	0.252	0.089	0.204	2.818	0.005**

** : p<0.01, ***: p<0.001

R²=0.365
adj.
R²=0.338
F=13.785
p=0.000***

4. 고찰 및 제언

대학생 시기는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생활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도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무엇보다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은 향후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으로 살기 위해 가장 많은 과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4].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은 다양한 정보의 습득을 통해 지적으로 성숙한 인격체이지만, 정작 건강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는 부족한 상태에 있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관찰하고 비교분석 하였다.

대학생들이 인지, 자각하고 있는 구강건강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p<0.001$), 구강건강의 중요도($p<0.01$), 현재 학생들이 지각하는 구강건강 상태($p<0.01$) 등, 치위생과 학생이 모든 요인에서 일반 학생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 등[13]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이 결과는 본 연구 결과에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일반 학생 보다 치위생과 학생이 많은 것($p<0.001$)과 관련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었다.

구강위생보조용품은 치위생과 학생 62.5%, 일반 학생 37.5%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치과 전문가(치과의사 혹은 치과위생사)로부터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법에 관한 교육에 대한 경험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 65.3%, 일반 학생 34.7%에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이와 관련하여 이와 강[14]은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대한 태도 형성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교육이 약 54.5%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구강위생보조용품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치과진료 인력들을 통한 보다 많은 구강보건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보건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이 4.41 ± 0.62 점으로 일반 학생 3.81 ± 0.70 점보다 높게 나타났고($p<0.001$), 치위생과 학생이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강보건인식에서

치위생과 학생은 예방의 중요성, 정기구강검진의 필요성,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의 항목에서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냈으며, 일반 학생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 예방의 중요성, 취침 전 칫솔질 등의 항목에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박 등[15]은 구강진료기관에 자주 내원하는 경우 구강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고, 구강보건교육과 진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구강보건지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구강병의 예방과 조기치료로 이어지고 구강보건수준도 향상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치위생과 학생들에 비해 정기구강검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강보건실천을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이 3.80 ± 0.61 점으로 일반 학생 3.33 ± 0.57 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01$), 치위생과 학생이 구강보건실천의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의 구강보건인식 수준이 일반 학생들 보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6-9]과 같이 인식에 비해서 실천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11]는 구강보건교육 시 단순한 지식만 전달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강보건상의 구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보건실천에서는 치위생과와 일반 학생 모두 혀 잇솔질, 취침 전 칫솔질, 칫솔질 시 회전법 이용 등의 항목에서 높은 실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치아에 해로운 음식을 피한다와 정기적인 스켈링 등의 항목에서 낮은 실천 수준을 보여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인식이란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데 기본이 되는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의식을 말하며, 건강행위란 현재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든지 간에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16]. 이와 관련하여 구강건강 특성과 구강보건인식 및 실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와 일반 학생들 모두 구강건강에 대

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중요도($p<0.05$), 현재의 구강건강 상태($p<0.05$), 구강보건인식($p<0.05$) 수준, 구강보건실천 수준($p<0.01$)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스스로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지속적인 동기유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보건교육관련 요인에 따른 구강보건인식 및 실천 수준을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구강보건실천 수준은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p<0.01$), 일반 학생들은 구강보건교육 경험,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한 경험,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법 교육의 경험에서 모두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은 구강보건인식, 구강건강 특성과 구강보건교육 관련 요인들에 의해 구강보건실천 수준이 39.2%로 설명되었고, 일반 학생은 36.5%로 설명되었으며, 구강보건실천 수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보건인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구강보건인식 및 실천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강보건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 환자에게 적합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강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인 치과위생사는[17] 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은 재학 중에 보다 다양한 훈련과 실습 등의 교육을 통하여 구강보건 교육자로서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2개 지역 대학의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지만, 치위생과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관찰하고 측정함으로써 이들 시기에 적합한 교육에 대해 연구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을 보다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들 시기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 대학생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구강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인력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연구되어졌다. 이를 위해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2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인식 수준과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관찰과 비교분석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학생들이 인지, 자각하고 있는 구강건강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p<0.001$), 구강건강의 중요도($p<0.01$), 현재 학생들이 지각하는 구강건강 상태($p<0.01$) 등의 모든 요인에서 치위생과 학생이 일반 학생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2. 구강위생보조용품은 치위생과 학생 62.5%, 일반 학생 37.5%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치과 전문가로부터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법에 관한 교육에 대한 경험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 65.3%, 일반 학생 34.7%에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3. 구강보건인식과 실천 수준을 살펴본 결과, 구강보건인식 수준은 치위생과 학생이 4.41 ± 0.62 점으로 일반 학생 3.81 ± 0.70 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1$), 구강보건실천 수준 역시 치위생과 학생이 3.80 ± 0.61 점으로 일반 학생 3.33 ± 0.57 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4. 구강건강 특성과 구강보건인식 및 실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와 일반 학생들 모두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중요도($p<0.05$), 현재의 구강건강 상태($p<0.05$), 구강보건실천 수준($p<0.01$)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건강 중요도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인식($p<0.05$) 수준과 구강보건실천($p<0.01$)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강보건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실천($p<0.001$)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5.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은 구강보건인식, 구강건강 특성과 구강보건교육 관련 요인들에 의해 구강보건실천 수

준이 39.2%로 설명되었고, 일반 학생은 36.5%로 설명되었으며, 구강보건실천 수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보건인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보건인식과 실천 수준이 높고 구강보건인식 수준이 증가할수록 구강보건실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시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강보건인식과 실천 에서 각 문항별로 수준의 차이를 보여, 비교적 인식 및 실천 수준이 낮은 항목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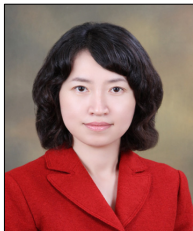
REFERENCES

- [1] Su-Ok Lee, Self-perception, knowledge and behavior of clients received oral health services in a university hospital dental clinic.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2004.
- [2] Shin-Jeong Kim, Eun-Sook An, Health concept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college women. J Korean Acad Nurs, Vol. 27, No. 2, pp. 264-274, 1997.
- [3] Ae-Kyeong Kim, Exploratory study of the Korean health concept and health behavior. J Korean Acad Nurs, Vol. 24, No. 1, pp. 70-84, 1994.
- [4] Jeong-Eun Choi, Young-Goo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Nutrition Knowledge, Dietary Self-efficacy, Dietary Habits and Menu Choice Behavior.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Vol. 15, No. 6, pp. 249-275, 2012.
- [5] Hae-Sook Oh, Sung-Hee Min, A Study on Dietary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in WonJu Are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Vol. 16, No. 3, pp. 215-224, 2001.
- [6] Sang-Mi Nam,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the volunteers in practice for oral prophylaxi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1, No. 1, pp. 13-27, 2011.
- [7] Youn-Soo Shim, Hee-Sun Woo, A analysis on oral health behaviors of workers and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2, No. 4, pp. 839-848, 2012.
- [8] Man-Seok Kong, Heung-Soo Lee, Soo-nam Kim, Children's dental health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dental health knowledge level, attitude toward dentist and dental health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Vol. 18, No 1, pp. 84-94, 1994.
- [9] Mi-Jung Kim, Related Factors to Perception and Practice for Oral Health among Patients Visiting Dental Clinic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2010.
- [10] Seong Jeong-Min, Yun-Mi Moon, A study on the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other major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2, No. 3, pp. 577-583, 2012.
- [11] Jeong-hee Lee, A study about relation between dental health realization and practi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07.
- [12] Youn-Ho Hong, A Study of Dietary Pattern and Food Prefer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Gwangju and Chonnam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Vol. 23, No. 3, pp. 318-327, 2008.
- [13] Kyung-Hee Lee, Hyun-Jung Gwon, Hye-Jeong Youn(2007). A Comparative Study on the Knowledge of Oral Health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7(3), 121-127.
- [14] Kyeong-Hee Lee, Jong-O Kang, A survey on the patient's behavior about the use of oral hygiene devices, Transactions of Shin-Heung College, Vol. 31, pp. 19-57, 2008.
- [15] Chung-Soon Park, Kyung-Hee Lee, On-Ju Ju, Ji-Youn Lee, Sun-Ju Kim, A Study on the Behavior Status for Oral Health of Pregnant Women. Journal of Hygiene Science, Vol. 10, No. 2,

pp. 71-82, 2004.

- [16] Ju-Yeong Park, Myung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awareness and health behavior for adult men in Korea-Lateral on the prevention of adult chronic disease. Journal of Society for Health Eduvation and Promotion, Vol. 5, No. 2, pp. 52-62, 1988.
- [17] Sun-Mee Lee, A Q-methodological study on the professional image of a dental hygienist.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1999.

박 일 순(Park, Il-Soon)



- 2004년 8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관리, 임상치위생학
- E-mail : pisdong@hanmail.net

윤 혜 정(Yoon, Hye-Jeong)



- 2009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의학과 (치의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예방치위생학, 포괄치위생학
- E-mail : nara78@hanmail.net